

2021 새해

피부와 시술 키워드

#집콕 #설연휴사전예약

2021 피부과 시술



2021년이 밝았다. 코로나 정국 속에 제3차 대유행의 여파로 연말연시 기분을 느낄새 없이 새해가 밝아버렸다. 때아닌 집콕 문화의 확산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한 사람들. 랜선 송년회와 신년회가 주를 이루고, 이웃간 왕래는 물론 거리도 텅텅 비어 가고 있다. 트렌드2021의 전망처럼 집의 다층적인 역할이 강화되는 레이어드홈의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너무나 달라진 새해 풍경이지만 또 그렇게 모두들 적응하며 살아내고 있다.

피부과 진료 현장도 마찬가지다. 환자는 현저하게 줄었지만 주어진 집콕 생활을 슬기롭게 활용하여 환골탈태와 피부나이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주말이나 긴 연휴를 활용해 받았던 시술들을 미리 받고 바로 집에서 회복기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집콕과 더불어 마스크의 일상화가 도움이 되는 기현상이나 팬데믹에 대처하는 긍정 자세이기도 하다.

환골탈태의 기회, 여드름흉터 치료 S-DRT

환골탈태의 대표적인 피부과 시술을 꼽으라면 1초의 망설임 없이 여드름흉터 치료라고 말할 수 있다. 여드름흉터 치료에 대한 차안박피부과의 집념은 무결점 피부를 지향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레이저 시술 후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은 물론 평생 콤플렉스였던 여드름흉터에서 탈출했다고 진심 후기를 남기는 등 실제 시술 후 만족도는 임상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진피층에 생기는 흉터는 한번 생기면 자연스럽게 원래의 피부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으로도 커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흔하게 환골탈태라고 한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드라마틱하지만 무엇보다 자신감 장전이다. 여드름흉터 치료를 결심했다면 지금 시작해 보자. 집콕 기간 동안을 활용하면 더욱 편안하게 회복기간을 가질 수 있다. 무결점 피부가 만들어 지는 시간이다.

빠른 여드름흉터 치료는 S-DRT 차안박피부과만 기억하자.



리프팅은 리프팅이다. 피부나이 STOP



주름, 처짐은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한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노화가 심해지는 상황도 생긴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외부 환경은 막무가내로 우리 피부건강을 위협한다. 좀더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 한다. **리프팅은 리프팅** 이라고 말이다. 요즘 리프팅은 티나지 않지만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시술을 선호한다. 대표적으로 초음파리프팅과 실리프팅을 소개한다. 초음파리프팅은 피부 진피층과 섬유 근막층에 고강도 초음파(HIFU) 에너지를 통해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시술이다. 초음파리프팅을 받게 되면 피부 조직이 응고되고 수축되어 위쪽으로 당김 현상이 나타나 리프팅이 서서히 이뤄지게 된다. 실리프팅은 녹는 실을 이용하여 처지고 늘어진 피부를 당겨주는 시술로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는 물론 피부 속에 남은 실이 콜라겐 재생을 도와 전체적으로 얼굴선을 살려주고 탄력을 증진시킨다.

실리프팅의 장점은 빠르고 확실한 효과이고 부위별 시술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초음파리프팅의 장점은 시술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 자연스럽게 리프팅된다는 점이다. 리프팅 시술의 춘추전국시대다. 자신의 피부 상황에 맞는 맞춤형으로 피부나이를 줄여보자

설연휴 사전 예약, 이제는 기본

정직한 설연휴 일정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전 예약이다. 이후 상황이 악화되어 설연휴도 지난해 추석처럼 비대면 이슈가 불쑥 등장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말이다. 지혜로운 명절나기를 응원하며 그동안 미뤄두었던 피부고민이 있다면 해소해 보는 방법도 좋다.

● 시술 받기 좋은 날 ● 휴진

! **2/11 ~ 13 차안박피부과네트워크 전지점 휴진**

5, 6일 (금토), 8, 9, 10 (월화수) 시술받기 좋은 날 꼭 기억하세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5	06
07	08	09	10	11	12	13

2021년 신축년 소의 해. 소의 성격은 인내심이 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여 성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고지가 멀지 않았다. 좀더 힘을 내어 인내심을 가지고 난관을 헤쳐 나가도록 한다. 코로나블루가 아닌 희망 긍정 메시지로 스스로를 돌보고 미래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그렇다. 모두들 기다라는 봄, 그 봄은 오고야 만다.